2020. 5. 8. (금) 언론보도

KBS 🗇

2020년 05월 07일 (목)

사회

국내 야생멧돼지 ASF 역학조사 중간결과 발표 ... "접경지역으로 최초 유입"



[맹커]

국립환경과학원이 오늘 국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원인 등을 분석한 역학 조사 중간결과를 곱개했습니다.

해외에서 유행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비무참지대 인근 접경지역으로 최초 문 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비무장지대 인근 접검지역으로 최초 유입됐다는 역 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러한 내용의 야삼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 중간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아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58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국내 아생멧돼지에서 검출된 5백이 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모두 유전형 II로, 이는 동유럽에서 발생해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와 같은 것으로 파막됐습니다.

또 초기 발생지점을 보면, 칠원과 면전, 파주는 모두 남방한계선 1km 내에서 발생이 시작 됐습니다.

지난달 처음 확진된 고성군도 남망한계선에서 약 0.2km 떨어진 지점에서 바이러스가 검출 했습니다.

환경과학원은 하천이나 동물, 사람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점확한 경 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멧돼지 이동차단을 위해 설치한 물타리는 이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지언하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접검지역을 몸서로 가로지르는 광역 올타리는 약 99.5%의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이수만맙니다.



DMZ 넘은 '돼지열병'...'야생 멧돼지' 감염 확 산 우려

◀ 앵커 ▶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사육돼지 수십만 마리가 살처분 됐습니다.

엣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유전자를 조시해 봤더니 돼지얼병이 북 쪽에서 넘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 연천군 한 마음이 최근 긴급 방역을 심시했습니다.

죽은 채 발견된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돼지멀병에 걸린 멧돼지 사체를 발견한 곳입니다.

이곳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에서 불과 600m 떨어진 곳인데요.

여기서 사체를 발견한 이후에 경기 연전군에서는 다른 곳에서도, 얼벌에 걸린 멧돼지 사체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3월 이후 검기 연천군과 강원 화천군 두 지역에서 멧돼지가 열병에 걸려 축은 사례는 280 건에 이릅니다.

지난해 가을 비무장지대 아래 남방 한계선에서 확인된 돼지열병이, 겨울에는 민통선을 넘었고 최근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으로 폭넓게 확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만덕/경기 연천군 주민]

"하우스 지은 데 그쪽으로 그냥, 거기까지도 내려와요. 이 그저께도 내려왔는데 뭘, 돼지가 논에."

당국이 열병에 걸려 폐사한 멧돼지 유전자 585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중국에서 유행한 것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김용관/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

'유전형 II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전형 II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요."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멧돼지를 통해 북한을 가로질러 비무장지대를 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멧돼지가 새끼를 낳는 시기와 농번기가 겹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급격히 확산 될 것을 무려하고 있습니다.

[유승도/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

"하천을 통해서, 또 소형 매개 동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과 차량 등의 가능성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에 가까워, 지난해에만 사육 돼지 38만여 마리가 선제적으로 살처분 됐습니다.

정부는 돼지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남북 방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북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김우람 / 영상편집: 김선천)(이재민)



러·중서 유행한 ASF 바이러스, 북한 거쳐 국내 멧돼지로 유입



국내 아센팅까지 마르크롭던지원위(ASE)은 미시아 중국에서 유명하던 테마리스가 복단을 가쳐 미부원칙제(DMO) 있는 결혼시작을 통해 한다는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경부 소속 구입위권의회의은 국내 아버렛에의 ADF 방에 가까지 된다 경로 등의 문서한 역적 조사 순간급과는 무요(7명) 공개했습니다.

ADF는 2007년 등록 소지하에서 유현하기 시작에 2017년 인사에 종후, 2018년 이 등 종국, 영고, 레르남 등 아시아콘 독선한 활동으로, 인간에게 감압자한 결제한 대전과 동물이 걸릴 경우 시사들의 건의 190억에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희 10일 2분 호배자 ASF가 집은 독점된 미주 최근까지 ASF 감영 시계가 어머리고 합습니다.

연구권은 국내 첫째의 ASF 세미리스의 유원용이 2007년 성무립(조치이)에서 발생에 전혀 이사아 등국 등에서 무용하는 ASF 가이러스의 강마는 집을 크기로 전략 권료를 주용됐습니다.

'유방의 ASE 비여러스 관련점을 숙제되므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립히 지난에 5월 30일 일독권 부근 자라도 무시고의 집단등감에서 AIF가 당살했다고 세계진당보건거구(OE)에 교식적으로 보고한 바 했어 되었다. 같은 유한함의 AIF를 전 파하는 배 증간나의 역할을 받을 것으로 만구원로 반간했습니다.



中央企业 中央企业

실제로 국내 조기 ACE 방병지원을 보고 남자하게서 166 내내 있는 불위, 건선, 파주에 볼 의 열립니다.

지난당 3을 세워으로 AGF가 하신한 고생 에서 뒤범현계선에서 빨리 0.2% 할이저 있는 곳 에서 ASE 바따라스가 결중한 바 됐습니다.

국내 등의 대주에는 분해 저역 나에서 형제의 간 얼굴 비리, 취재라 박이 골유, 변식기 수학 긴 경험, 남수 긴의 반의 목을 늘 형제지 긴 결축에 의해 시되기 원피한 것으로 부입니다.

LI만 기존 원종 회교에서 7 - 33me개왕 형이전 화원군 봉산의, 건산군 부족리, 왕군군 수인 리 등 방무 사례는 수업 등장이나 사람, 자랑 마등 등 전위되면 유인이 ASF 전략에 공강될 이화를 경으로 연구권로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열대의 ASF는 과주, 면원, 설명, 학원, 말구, 고설, 포환 등 7궁에서만 나왔습니다.

시역병 양살 건수는 안된(200건), 목초(202건), 목투(36건) 모유로 철었습니다.

이후 복부, 면원 녹색부, 훨씬 복부 시역은 최근 ABL 점출대 클머슨 상태시는 안한 모두 확한 중구, 항구 부구, 고한 학생부는 용에 처음으로 ASE가 방향한 석후 원래에서 ASE가 계속해서 방한대로 말합니다.

지점환경과학원은 앞으로도 ASF 당살 시계를 추가로 문서할 계획입니다.

되호 의학 보시 글씨는 출본한 NU 시에게 보이고 바다라스 확인에가 되게내 나도 수 없을 없으로 부입니다.

장인씨 국립한경과학원장은 "앞으로 추가하는 여억호의 문부으로 사기비 청약한 문합 검호 등 구매를 호구하면 말에 대하여 마련되도록 가여한 것"마리며 "문제 상반기에 국립마본장 못잘병균리원(다회)를 조속히 개원해 성식치하고 선속한 역학호사 체계를 갖춘 광"이라고 위한합니다.

한번 지난 BP간(지난당 20명~이본 6명) 마생앗까지에서 ASF는 24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미로와 첫체지에서 ASF 최근은 한국적으로 600권으로 들었습니다.

[사원-구읍환문대학원 대권, 안하뉴스]

で見て 利利(ykyn)長mmm kó



"접경지역 ASF, 북한서 유입"...매개체 추가 조 사



【앵커】 경기도와 만천, 강원도 점검지역의 아생멧돼지에서 발병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 러스가 러시아와 중국에서 북한을 거쳐 유입됐을 것이라는 국내 역학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경부는 다만, 유입 매개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과주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배사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확인된 건 지난해 10월 2일.

이후 철원과 연천 등 초기 발생 지점을 보면 모두 남밤한계선 1km 내에서 시작됐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러시아 중국에서 유행 중인 바이러스가 비무장지대 인근 참 경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중간 결과지만 예방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봤습니다.

[유승도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 역학조사 결과가 아생멧돼지 마프리카돼지얼 범의 효율적인 예방 관리대책에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한 역학조사반의 검토를 통해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역학조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돼지멸병 585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 국내 야씸멧돼지에서 검총된 5백여 건의 마이러스는 모두 유전형 II 로 확인됐습니다.

양서 동유럽에서 발생해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영병 바이라스 와 같은 겁니다.

지난달 처음 확진된 고성군 역시 남방한게선에서 2백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과주와 연천, 첩원 같은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인 생입니다.

환경과학원은 하천이나 동물, 사람을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경보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됐습니다.

과학원은 이어 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해 설치한 물타리가 약 99.5%의 돼지열병 확산 차단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컴대회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이시영 / 영상편점 양규철>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무장지대 통해 유 입된 듯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역학조사 증간결과 방표 '유럽에서 리시아, 중국, 북한 통해 유입됐음 것으로 추정…경보는 아취'

ICER도交标스 감방지 기자]



(일러스트~면접뉴스) 현재까지 500간이 넘게 나타난 국내 아생뗏돼지 아프리카텍지엄행(ASF)이 '비무정지대 반 근 접경지역을 통해 유입됐다'는 당국의 문식 즐긴결과가 나왔다.

환경무는 7일 국내 야상멧돼지 ASF의 발해 원인과 전미 경로 등을 문식한 역학조시 중간점 과를 공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0월 2일 이상맞혀지 해시세여서 처음으로 ASF가 확인된 뒤 관 린 천분가 등 20여 연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통해 명원 건을 본석했다.

지난달 30및까지 전국적으로 체취한 마생멧돼지 시르 1년 6809건 중 3:5%인 585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증된 상태다

환경과학원단 '마생뱃돼지 ASF의 국내 유입 경로는 러시아-중국에서 유행 중인 ASF 바이 라스카 비무장시대 인근 점경시력으로 유럽된 장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유전치 분석 결과 이들 바이러스는 모두 '유전형비'(Cerotype II)로 확인했는데, 이는 현재 러시여와 중국 등에서 유형하고 있는 ASF 바이러스와 동일한 것이다. 유전형 II는 동유럽 조시아공화국에서 발전에 유럽과 중국, 북한, 러시마, 몽골, 배트남 등 아시아 지역으로 전 마친 유랑이다.

결국 최천 경로는 북한과 충국일 가능성이 높은 텐마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발생 이후 임원강과 한반강 등 독원 조시에서 바이러스가 감출되지 않는 등 역약인계를 추정할 근거 가 나모지 않았다"며 "다면 레시아와 충국, 목한에서 모두 발병이 된 경으로 따딱된 만큼, 이 경로를 거쳐 유럽됐을 정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생시피에서의 최초 유럽과 확신 당산을 분석한 데 (다르면, 강원 철원과 참기 먼천, 파주는 모두 난방인계선 1kg 내에서 발생이 시작됐다.

지난당 3명 처음 AGF 비이라는 양성이 확진된 강한 고설도 남방한계선에 약 0.2% 군합한 지점에서 건출됐다.

지난 2월에는 경기 파주의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는 자랑과 강권 양구의 비모랑지대 내 분동 덤마에서도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유함 경보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가능성을 열무해 두고 있는 수준이다.

환경과학원은 "국내 유입경도는 하천, 에게 동물, 사람과 차명 등의 가능성의 있지만 원목 한 규명을 위해서는 추가 조시가 필요하다"고 실망했다.

국내 유럽 이후 전파는 주로 광면된 멧돼지나 폐사례를 접촉한 데 따른 권으로 판단된다고 단국은 병했다.

명돼지 간의 전파는 가득집단 내 얼굴 비밀, 잠자리 막이 공유, 반식기 수컷 간 결행, 반석 행동 시 명화지 간 집속을 통해 떨어나는 것으로 파악했다. 명재되들이 몸을 비리는 나무인 미림목, 목욕장 등 생활관권이나 감안 폐시체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기존 발생지에서 7~33ke가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로 발생한 경기 먼천군 무곡리, 강료 화청군 음산리, 양구군 수인리 집 일부 사례는 수업이나 사람, 차량 이동 등 인위적 모 인터 명합을 미월을 것으로 주점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ASF 바이러스가 또 어떤 경로로 '사목동가'에도 유입됐을지는 농결축산식품부가 약약조사 볼 추도하고 있는 현대다.

한민 첫배치 이동을 막기 위해 성치만 물따리는 ASF의 확산을 차단·치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 파주의 면천, 강원 정원, 화천 지역의 ASF는 지난달 30명까지 성치 된 18개의 2차 올다리 안에서 주로 권흥되고 있으며, 권정지역을 동서로 기로지르는 광의 울다리 멕시 약 99.5억의 차단 휴과가 있는 것으로 당국은 반단하고 있다.

창문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주가 여학조시 문제으로 정확한 규임 전과경로를 규인해 효과 적인 방에 대해에 기어할 계획"이라며 "상반기 중 국립하셨답활절병권리원(가침)을 개원해 상시적이고 선속한 역학조사 체계를 갖춘 매장"이라고 밝혔다.

divine@ctrs.co.itr

朝鮮日報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러·중국 거쳐 북한 통해 왔다

국내 야색멧돼지가 감염된 아프리카 이서만 발견됐다. 돼지열병(ASF)은 권시아·중국에서 유 것으로 밝혀졌다. 유입 경로로는 쪽제 비, 너구리 등의 매개 동물이나 하전, 사 순이었다. 과학원은 "최초 유입 양상을 람 등이 끝했다.

국립화결과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단 은 국내 야생멧돼지 ASF 역하조사 결과 몸 7일 발표했다. 역학조사는 지난해 10 월 처음으로 발견된 ASF 바이러스 양석 반응 야생맹돼지 폐사체부터 이후 국내 에서 발생한 58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 터 지난당 30일까지 전국에서 포함・밤 견된 아쨋멧돼지 1만6809개체를 검사 한 결과, 3.5%인 585건에서 ASF 바이 리스가 점출됐다.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 모두 유전형[[바이러스로 러시아 와 중국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ASF 바 이러스와 돌양하다. 전체 500여 건의 ASF 감염 야생멧돼지는 화주, 연천, 철 원,화천,양구,고성,포천등 접경 지역 로보인다"고 했다.

역체이 39.3%로 가장 많았고, 이이 화 행하던 바이러스가 북한을 거쳐 전화된 천(37.9%), 과주(16.4%), 철원(0.5%), 양구(0.5%), 고성(0.5%), 포천(0.3%) 분석한 결과 정원, 연천, 과주는 모두 남 방한계선 Hm 내에서 발생이 시작됐다" 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이러스가 유입 됐는지는 여전히 미스타리다. ASF 발생 조기 일각에선 "북한 멧돼지가 납하해 서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 아니냐"는 의 다. 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일부 축도 나왔으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 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멧돼지의 몸집 을 고려하면 철책을 뚫고 내려오기 어렵 다"며 "쪽제비, 너구리, 까마귀 등 정체 을 통과함 수 있는 매개 동물이나 하천. 또는 비무장지대를 오가는 사람 차랑 등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 뗏돼지의 분뇨 나 타액이 전화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 김호인 기자

국민일보

환경부 "돼지열병, 러·中 거쳐 국내 유입" 결론

"DMZ 거쳤지만 北 경유 단정 못해"

환경부가 국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서 검출된 ASF 바이러스는 모두 유전 발견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 형 [[(Genotype [[)로 확인했다. 러시 러스가 러시아 중국을 통해 국내에 유 입된 것으로 잡정 결론을 내렸다. 정부 바이러스와 동일한 것이다. 기관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ASF 다. 다만 ASF가 러시아-중국에서 북한 을 거쳐 국내로 전파됐을 가능성에 대해 서는 "단정할수 없다"고 했다.

원)은 7일 "야생멧돼지 ASF 국내 유입 ASF 바이러스가 비무장지다 인근 접경 밝혔다.

역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 도알수 없다는 게 과학원 축설명이다.

체 585건을 대신으로 역하조사를 실시

과학원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국내 야 유입 경로를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 생멧돼지에서 발견된 ASF 바이러스가 역된 다른 멧돼지 또는 폐사세와의 접촉 러시아-중국을 거쳐 비무장지대 인근 접 경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과 얼굴을 비비거나 잠자리 먹이 등을 공 학원은 다만 '비무장지대'를 언급하면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학 도북한을 거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침 북했다. 러시아·중국을 거쳐 국내에 생지역과 멀리 떨어진 화천·연천·양구 경로는 러시아·중국에서 유행 중인 ASF가 전파됐다면 북한을 거치지 않고 군 일부 사례는 인위적 요인이 영향을 선 지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세계 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동불보건기구(OIE)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북한 압록강 부근 자감도 우시군의 과학위은 지난해 10월 2일부터 지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반생했다. 하지만 달 30일까지 파주·연천·철원 등 7개 지 국한 ASF 바이러스 유전형은 현재까지

유종찬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 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야생멧돼지에 구팀 연구사는 "북한에서 국내로 ASF가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할 순 있지 만 단정할 근거는 없다"면서 "국제적으 아와 중국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ASF 로북한 야생멧돼지 ASF의 유전형이 보 고된시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과학원은 국내에서의 ASF 전파는 감 으로 판단했다. 멧돼지가 가족집단끼리 유하고 번식행동을 할 때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발 미졌을 가능성도 베제할 수 없다고 봤 다. 유 연구사는 "현재 환경부에서 마련 중인 '야생멧돼지 ASF 종한대책'에는 이번 역학조사 결과가 일부 반영되는 것 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재립 기자 ipchoi@kmib.co.kr

하기레

2020년 05월 08일 (금) 사회 10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북서 유입' 잠정결론

환경부, 비무장지대 경로 확인 국내 전파, 멧돼지 간 접촉 추정

환경부가 국내 야생뗏돼지들에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에서 비무장지대 를 넘어 유업됐다는 잠장 겉론을 내렸다. 장 부 기관이 역학조사를 토대로 북한을 통한 유업가능성을 공식 안정하기는 처음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7일 국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원인 과 전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 결과 발 표에서 "국내 유입 경로는 러시아·중국에서 유행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비 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585건의 바이러스가 모두 조지아(2008) ·러시아(2017) ·체코(2017) ·벨기에(2018) · 중국(2018)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와 동일한 '유전자II 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북한에서 발병했을 때 어떤 유형의 바이러스가 나왔는지는 국제적으로 보고되지 않았지만, 유라시아 대륙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바이러스가다시한국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국내 야생멧돼지의 감염점로가 밝혀진 것은 질병 발생 이후 이번에 처음이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 장은 "야생멧돼지 첫 폐사체가 비무장지대 에서 발견된 이후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접 이 모두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인데다. 이번에 바이러스의 유전형이 모두 중국과 러시아에 서 학산된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됐 다"고설명했다.

국내에서의 전파 경로는 감염된 다른 뗏 돼지 또는 페사체와의 접촉으로 추정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n@hani.co.kr

경인일보

'돼지열병' DMZ 넘어 국내로 왔다

국립환경과학원 역학조사 결과 100%에 육박한다.

국내아프리카되지엘병(ASF)은러 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유행하던 바이 이 조지아에서 발생해 확산된 ASE 러스가 북한을 거쳐 비무장시대(DM 바이러스와 같다는 점을 근거로 전파 2) 이근 전경지역을 통해 전파한 것이 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야생멧돼지 ASF 발생 원인과 전파 의 정확한 유입 경로를 규명해 효과 경로 등을 분석한 역한 조사 중간절 적인 방역 대책이 마련되도록 기여하 과름 7일 발표했다. ASF는 2007년 겠다"고 말했다. 유럽 조지아에서 유행하기 시작해 이다. 인간은 영향을 반지 않지만 돼 은 전국적으로 6/4건으로 늘었다. 짓과 동물이 걸릴 경우 치사율이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2일 멧돼 조지아 발생 '유전형' 전파 근거 자에서 처음확인된 뒤최근까지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 연구진은 ASF 바이러스의 유전형 경로를 추정했다.

장윤석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위은 국 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분석으로 ASF

한편 지난달 29일~이달 6일 야생 2017년 리시아 중부, 2018년 중국·봉 멧돼지에서 ASF는 24건 추가로 발생 골-베트남 등 아시아로 확산한 질병 했다. 이로써 멧돼지에서 ASP 확진

/김성주기자-ksj@kyeongin.com